

“판·검사, 퇴임 후 2년 지나야 출마”

‘이낙연 신당’ 새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내걸어 만성질환 책임있는 관리·동네 의원 중심 제도 설계 등 어르신 의료 공약도 발표 앞서 EBS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소방재정 강화 등도 소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인 새미래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5일 새미래는 정치개혁 공약 1호로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내걸었다. 김만홍 새미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검사 출신은 퇴임 이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2년 기준은 최소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만홍 정책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임 후 3년 동안 관련 기관,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출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전 퇴임 조건 외에 특별한 제약 없이 유관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여론 보도사피심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정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법부까지도 정치 진영화가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새미래는 △어르신 만성질환 책임있는 관리, △과잉진료 방지 및 적재적소 맞춤형 건강 관리,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중심 제도 설계, △보건소 및 1차의료기관(주치의) 협력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어르신 재진 대상 원격의료 허용, △보건소 및 주치의 등과 연계 원격의료,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체계 확립,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어르신 의료 공

약도 발표했다. 앞서, 새미래는 최근 유튜브 ‘새미래TV’를 통해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초중고 외에 성인까지 커지고 있는데 EBS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보편교육을 이끌겠다는 교육 정책 1호 공약으로 EBS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를 소개한 바 있다. 이어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발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완전한 국가직화 △소방재정 강화 △기술 변화에 따른 시설·장비 보강 △일상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방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김만홍 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새미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의견을 포용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여러분들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국주영은 의장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실에서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사진 오른쪽)와 양국의 상생발전 및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양한 협력증진 통해 더 끈끈한 관계 도모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와 면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 의정실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구정치 총영사 일행을 만나 양국의 상생발전 및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올해는 우리 의회와 강소성인대의 교류 28주년, 우리 도와 중국 강소성의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계는 다시 긴밀히 이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간 연대가 더욱

필요 하기에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정치 총영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협력증진 방안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중국 강소성 인대와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맺었고, 운남성 인대와도 2011년 8월 우호 협력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방문, 회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사전투표 4월 5~6일, 본투표 4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식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사필귀정... 이제라도 바로잡혀 공정한 경쟁”

민주, 정희균 컷오프 재심 수용 정 예비후보, 완진무 경선 참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5일 완·진안·무주 지역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선거구는 정희균·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최근 지역 내 여론조사에 2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이번 재심 통과로 총선 승리 기도에 힘을 받게 됐다. 정 예비후보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혀 공정한 경쟁을 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는 민심을 어렵지 않게 들었다”며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난 8년간 정채태 있던 완주, 진안, 무주를 품과 희망이 넘쳐나는 풍요롭고 넉넉한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삼례IC 진입출로 4차로 확충을 비롯해 국도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등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당의 이번 재심 수용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 지역민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정치인의 몫”이라고 강조한 뒤, “법조인이 아닌 30년 전전 정치인 정희균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도(道)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산림 관리하는 산주에 입업지불제 등 제도 적용 검토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 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입업지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업인 2만596명이 총



467억원의 입업지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산림경영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업지불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

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입업용 산지는 입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입업지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지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윤정훈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입업지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지역 인사들 ‘유성업 릴레이 지지 선언’

권희철 출마예정자·유재석 예비후보·유진섭 전 정읍시장 등

제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업 예비후보에 대한 ‘릴레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정읍·고창선거구의 경선 후보로 유성업 예비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를 결정했다. 그러자 유재석 예비후보와 권희철 출마예정자를 비롯해 유진섭 전 정읍시장까지 일제히 유성업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성업 예비후보에 대한 릴레이 지

지 선언은 먼저 유재석 예비후보에게서 나왔다. 그는 “유성업 예비후보의 정치 경륜이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질 기대하며 유성업 예비후보와 더불어 이제정의 민주공화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지난 3일 두 번째 릴레이 지지선언자로 나섰다. 유 전 시장은 “지역 민심은 편 가르기, 갈라치기, 줄 세우기 등의 대립이 아닌 통합을 외치고 있다”며 “유성업으로의 선택은 정읍·고창 지역의

갈등을 넘어 ‘감동의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란 말로 힘을 실었다. 세 번째는 권희철 출마예정자다. “응원해 주신 정읍·고창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뿐”이라는 그는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유성업 예비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뜻을 전했다. 유성업 예비후보는 “신의 경쟁을 펼치다 잠시 그 뜻을 머무게 된 두 분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한 마음 또한 잊지 않았다. 유진섭 전 시장께도 가슴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정읍과 고창이 호남 정치의 분산이 되고 해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16만 정읍·고창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5일 제 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임선 의원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주택에서 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 제정

김대중 자치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더불어민주당)이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푸드테크에 대해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에 발맞춰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대체인력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 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정읍·고창 더 나은 미래 앞당길 것”

재선 도전' 민주 윤준병 의원, 총선 지역구 5대 공약 발표 지방경제 회생·고르게 잘사는 동행·농어촌재구조화 등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총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7일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준병 의원은 1월 28일에 곧바로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고, 제2호~제4호 공약에 이어 지난 3월 3일에 제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준병 의원은 발표된 총선 5대 공약 프로젝트는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고르게 잘사는 동행(同行)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이날 총선 5대 공약을 설명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폐쇄되고 있

다”면서 “특히나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간 경제적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민의 삶의 질 격차 확대 등의 문제로 지역인구 감소와 같이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퇴행하는 국정의 기초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정책의 핵심으로 끌어올려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농어촌의 재구조화 등에 집중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약속한 5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능력이 검증된 진짜 민주당원, 윤준병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